

세상이 아무리 급격하게 변한다고 하지만, 요즈음처럼 급변한 적도 드물 것이다. 유력한 상대 후보를 500만 표 이상 차이로 따돌리고 당선되어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던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세 달 만에 10% 지지대로 떨어지고, 연일 물러드는 촛불 시위대들을 막느라 청와대로 향하는 길마다 쥐 한 마리 빠져나가기 어려울 정도로 촘촘하게 경찰차로 막더니, 급기야 컨테이너 박스를 옮기면서 '컨테이너 관리장성'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게 하였다.

이번 사태가 겉으로 보기에는 '광우병 감염이 우려되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불거졌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훨씬 복잡한 일들이 얽혀 있는 것 같다.

취임도 하기 전부터 '영어 몰입 교육'을 비롯하여 중요 정책을 마구 쏟아내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하고 '한반도 대운하' 강행의 뜻을 밝혀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사게 한데다가, 내각 구성원과 청와대 고위급 인사에도 재산 축적과정이 석연치 않은 사람들과 특정 종교와 학교 인맥을 위주로 하여 '고소영' '강부자'니 하는 우스갯말까지 나오게 하였다. 여기에다 유가 급상에 따라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이 그야말로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까지 이르러 갔다.

이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엄청난 표 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본인의 인품력과 정책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순전히 전임 대통령과 전정권의 실책에 따른 반사이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 이후 국민들의 눈에 비친 그의 언행



불자 세상보기

이 병 두
칼럼니스트 번역가

대통령과 종교지도자

은 마치 하늘에서 "정권을 맡아야 한다"는 계시라도 받은 양, 언행을 안하무인(眼下無人)식으로 마구 해대는 것에 다름없었다.

게다가 청와대로 가는 길을 봉쇄해야 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되었으면, 실상을 바르게 파악하려 노력하고 진짜 국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애를 쓰는 것이 당연한데도 "초를 사는 비용은 누가 됐느냐?"는 등등,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려는 오만함만을 보여주었다.

뒤늦게 '나도 조금은 잘못했다'는 식으로 위기를 벗어나려 애를 쓰는 시늉을 하면서 각계와의 대화를 듣고 나와 불교·개신교계와 가톨릭

을 비롯한 종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조차 종교 지도자들 통해서 국민들의 바람(願)과 진솔한 목소리를 들으려하기보다는, 자기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에 급급했다는 느낌을 주어 많은 사람들에게 "책임은 회피하기 위한 장엄(莊嚴)용 대화 모임 아니었느냐?"는 비판을 듣게 되었다.

십지어 전임 대통령의 '말'에 실망했던 국민들에게서 "구관이 명관이다. 그래도 그때는 이렇게 경박스럽지는 않았다"는 말까지 나오게 되었다.

물론 현실 상황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없이, 이런 식의 면피(免避)용·장식(裝飾)용 대화 자리나 나가서 사진 몇 장 찍고, 밥 한 끼 먹고 떡담 몇 마디 나누는 것을 자신들의 대단한 권리인 양 여기는 종교 지도자들도 문제가 많다. 스스로 대표적인 종교 교단의 지도자를 자처한다면, 청와대까지 가서 대통령을 만날 때에는 만나는 목적이 무엇인지 잘 따지고, 가서 할 말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준비했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불만 세력 때문입니다"와 같은 식으로 권력자 앞에서 아부하는 말을 하지 않고, 국민들을 대신해 대통령과 정부의 잘못을 솔직하게 질타할 자신감을 갖추었어야 한다.

그러나 몇 차례 열린 각 종교 지도자들과의 만남에서 그런 자신감을 보여주고 국민들의 진짜 목소리를 전해주고 국민과 대통령 자신을 위해 냉정한 비판을 해준 지도자는 없었던 것 같다.

잘 알듯이, 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식으로는 모든 종류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것은 '대화'가 아니라 '훈시'나 '지시'일 뿐이다. 그런 점에서 올해 6월 대통령과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은 '대화'가 아니라, 일방 전달에 불과했다. 그 첫 번째 책임은 이 모든 것을 기획하고 연출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지만, "책임 회피용 의사(擬似) 대화"에 나가 대통령의 일방적인 설교를 듣고 기념사진 몇 장 찍고 온 종교지도자들 또한 큰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런지 희망이 없어요." 어두운 표정으로 말하던 사람들도 바뀌는 순간이 있다. 자신에게 희망을 주는 말을 만날 때이다. 학생들과 어려움과 난관을 겪게 되는 그 때를 대비하여 마음에 희망을 주는 말을 저장해 놓았다가 꺼내 쓰기로 했다. 학생들이 절망 극복, 희망 전략용으로 내놓은 마음의 입력틀이다.

희망 전략

○ 나는 잘 할 수 있다: 상당히 간단하고 명확한 구절이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웬지 이 말이 좋아서 마음에 품고 공부했다. 그러자 반에서 중위권을 뽐냈던 내가 3등을 하게 되었다. 또 다쳐서 뼈가 어긋나서 끼워 맞출 때도 있었는데 무서웠지만 "나는 할 수 있다"라고 입력을 했더니 효과가 컸다.

○ 여기서 포기하면 다시 이겨내지 못한다: 율령을 보면 세계기록이 세워지는 모습을 보곤 한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노력을 했을지 생각해 본다. 목표를 정하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면 다시 일어설지 못할 것이다. 도전하고 도전해서 이겨내는 것이 인생이다. 나는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마음에서 이 말들을 생각한다. "여기서 쓰러지면 다시 못 일어나. 일어나라, 어서!"

○ 힘들다고 하는 것도 행복이다: 예전에 철이 없을 때는 못 느꼈었지만 지금은 나보다 힘든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집에서 학교에서 느끼는 고통이나 힘든 일들이 행복하기

“내 인생은 왜 이런지...”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에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내 주변에 다두고 싶어도 그럴 기색이 없는 불우한 사람들도 많다. 또 공부하기 힘들지만 학교에 다니고 싶어도 다니지 못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힘들다는 것도 행복인 것 같다.

○ 가족을 생각하자: 나는 사실 지방에서 올라와 혼자 공부하기 때문에 나약해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공부하는 책상에 "아버지가 보고 계신다"라는 문구를 붙여놓고 있다. 공부하기 싫거나 집중이 안 될 때 정말 효과가 있다. 힘들 때마다 지갑 안에 넣고 다니는 가족사진을 꺼내본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난다.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한번 불끈 용기를 내게 되는 힘이다.

○ 인내심 강한 자가 승리한다: 내가 힘들면 남들도 힘들다. 누가 더 많이 인내하느냐의 차이라고 생각한다. 공부하는 만큼 보답이 주어진다 고 믿는다. 취업이 하늘에 별 따기라지만 난 포

68) 절망에서 희망으로

기하지 않고 할 것이다. 나는 해낼 수 있다는 마음의 입력을 하며 미래의 내 모습을 상상한다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다.

○ 나는 혼자자 아니다: 지치고 힘들 때면 나는 혼자자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 내 곁에는 어떤 경우에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무너지지 않고 더욱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의 존재가 내가 완전해지기 위해 애쓰는 이유이고, 인생을 더 잘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다잡는 이유이다.

○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자신이 있다: 나는 어려움과 장애에 부딪칠 때면 무조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다. 항상 긍정적인 생각으로, 어떤 어려움만 극복하면 또 좋아질 것이다 라고 믿는다. 호사다마라고 하듯이 좋은 일에는 안 좋은 일도 함께 따라오게 마련인 것이다. 비 온 후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어

떤 어려움도 극복하면 더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다.

○ 모든 것을 비운다: 어떤 때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고 너무 답답할 때가 있다. 그럴 때에는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한동안 모든 생각을 비운다. 명상을 하기도 하고 집에서 그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도 한다. 그렇게 다 버리고 나면 천천히 생각이 떠오르게 된다. 별 것 아닌 일도 많고, 내 생각에만 집착해서 사실보다 강박관념처럼 부풀려진 걱정거리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래서 걱정이 있으면 그 생각들이 다 가라앉을 때까지 마음을 비워본다.

○ 김00, 내가 못하면 아무도 못한다: 남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오만방자한 말일 것이다. 하지만 이 입력은 결코 자만이나 남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사람은 살면서 자기 뇌의 5% 밖에 쓰지 못하고 죽는다고 한다. 미리 포기하고 가능성을 닫기는 싫다. 나머지 95%에 도전하면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려고 한다.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한다. 남들이 한다면 나도 할 수 있다.

마음의 힘

아무리 상황과 조건이 어려워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평소 애용하던 마음의 입력을 해 두는 정진(正進)이말로 진짜 인생의 보람이 아닌가 생각한다.

홍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불자의 눈

수행도 '선택과 집중' 필요

수행도 사찰을 대표하는 '브랜드'가 되고 있다. 고양의 덕양선원은 천수대비주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기도도량이다. 덕양선원의 신도라면 누구나 천수다라니 수만 독을 하게 된다. 창계산 정토사의 경우 만일염불결사를 8년째 진행한다. 30년에 가까운 만일염불결사를 진행하는 정토사에는 한 시간도 끊이지 않고 염불이 흐른다. 해인사 백련암을 중심으로 성철 스님의 상화 스님들이 운영하는 사찰들은 능엄주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으로 소문나 있다.

사찰에서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은 당연한데 이들 사찰의 사례가 새삼스러운 것은 한국불교는 다양한 기도와 수행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회와 재일기도 등 전례 오는 관습에 의존하는 사찰 운영에서 대표적인 수행법을 정하고 장기간 집중적으로 정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찰의 기능이 발전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기도하고 법문 듣고 각종 의례를 행하는 공간으로서의 사찰은 현대사회에 어울릴 수 없다. 사찰은 치열한 구도의 장이 되어야 하고 뜨거운 학문탐구의 공간도 되어야 한다. 또 몸과 마음을 쉬는 곳이 되기도 해야 한다. 불교에 귀의한 불자들을 위해 물질적 정서적으로 토달 서비스를 하는 곳이 되지 않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수행이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를 선택해 혼란을 주기보다 하나의 수행법을 집중적으로 장기간 실시함으로써 불자들의 신심을 확고하게 하고 사찰의 이미지도 재고하는 새로운 풍속도가 더 확산되길 바란다.

통일나무심기 운동에 동참을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민추본부) 북한인 황폐화된 산에 나무심기 운동을 시작했다. 남북 관계가 그리 좋지 않은 시점에 시작한 이 운동은 그간의 불품지원보다 근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은 식량난과 벌목, 산림황폐화, 홍수피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고 있다.

민추본은 우선 평양에 양묘장을 설립해 거기서 묘목을 길러 산을 푸르게 할 생각이다. 이렇게 추진되는 '통일나무심기 운동'은 긴 시간을 필요로 한다.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전국적인 홍보활동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북에는 나무를 심고 남쪽의 국민들에게는 북쪽 풍포에 대한 민족애를 고취하고 통일에 대한 희망을 심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통일나무심기 운동이 불교 밖의 여러 단체들과 연계해 진행된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운동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숭고한 종교적 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외부의 단체들이 불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계기도 될 것이다.

민추본의 '통일나무심기 운동' 선언은 그간 일시적이고 산발적으로 전개된 북한 나무심기 운동을 보다 장기적이고 조직적인 운동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 종단이 체계적으로 동참하고 불자들도 힘으로 모으고 정성을 보태야 할 것이다.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디브이디) 출시 - 공중비법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사주명식을 작성하는 즉시 확실하고 선명하게 운명이 보입니다. - 그레아 역학입니다 -**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우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공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공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도 하여 현재는 국내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셨습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씻어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염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하게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움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의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 하시고 있지만 적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움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시려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연하여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습니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어떻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보다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 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견성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밀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정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끝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이 교재를 만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습니다. **장인이 눈을 떠서 대광명을 보듯이 신속하고 틀림없는 역학적 개인에 감동의 눈물을 흘립니다. 감사전화를 수 없이 받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주문하십시오.**

- ◆ 구입금액 : 일시불은 135만원, 할부가격은 150만원 (분납방법: 인도금 80만원, 한달후 40만원, 두달후 30만원)
- ◆ 계좌번호 : 농협 704-02-341067 (예금주 :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 (예금주 : 이하림))



사단법인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

진기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공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 인터넷으로 공부하십시오**
- http://www.esaju84.co.kr
 - 인터넷 주소창에 한글로 **성수철학원 또는 대구철학원** 을 입력해보세요.
 - DVD 동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의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안영(유료)
 -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회원증은 특혜있음)
 -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남몰래 한달 공부하여 해성과 같이 나타나십시오 -